

다구를 찾아서

14 쉬누아즈리



유럽에서 더 환영받았던 청화백자

유럽에 차가 언제 전해졌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다만 1610년경 네덜란드 상인에 의해 차가 처음으로 유럽에 소개됐고, 1630년대 중엽부터 프랑스, 독일, 영국 등으로 확산됐다고 알려져 있다.

영국에 음다풍속(飲茶風俗)의 씨를 뿌린 사람은 찰스 2세의 왕비 캐더린(Catherine of Braganza, 1638-1705)이다. 그녀는 포르투갈에서 시집을 떠났을 때 차와 관련이 깊은 두 가지를 갖고 왔다. 하나는 인도 뭍바이의 포르투갈 영토였고, 다른 하나는 설탕이었다. 뭍바이의 포르투갈 영토는 훗날 동인도회사의 전초기지가 돼 영제국홍차(The Empire Tea)가 만들어지는 발판이 됐다. 설탕은 당시 동양의 진귀하고 사치스러운 기호품인 차에 또 다른 진귀한 먹거리를 넣어 마시는 영국식 음다풍속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당시 귀족부인이든 해도 다구(茶具)의 입수가 쉽지 않았다. 설령 그것을 손에 넣어도 도구를 다룰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음다의 확산은 그렇게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하지만 동인도회사가 중국 푸젠성(福建省, 복건성)과 직접 무역을 시작하자, 유럽 전역을 휩쓸고 있었던 '쉬누아즈리(Chinoiserie, 중국취미)'가 영국에서도 붐을 이뤘다. 이 바람을 타고 중국식 다실에서 중국차를 입은 웨이터가 서비스를 하는 티가든(tea garden)이 인기를 끌면서 음다풍속은 크게 확산됐다.



경덕진(景德鎭) 제자, 영국 빅토리아 앤 앨버트 박물관(The Victoria and Albert Museum) 소장. 높이 33.5cm 너비 23cm. 오른쪽은 주자 바닥 사진.



쉬누아즈리는 17-18세기에 바로크, 로코코 양식과 함께 유럽에서 대단한 인기였다. 그런데 쉬누아즈리의 필바탕이 된 것은 중국의 청화백자(青花白磁, blue and white)였다.

하얀 바탕에 산화코발트를 안료 삼아 붓으로 문양을 그리는 기법은 이미 9세기 무렵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나 이란의 네이샤부르에서 시작됐다. 다만 그 지역들에는 중국과 같은 자토(磁土)가 없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은 청화도기(青花陶器)였다. 그래서 아라비아 상인들은 질 좋은 산화코발트가 발견되지 않았던 중국에 페르시아산 코발트를 안료로 제공하고 중국 경덕진(景德鎭)의 자토를 사용하는 새로운 상품인 청화백자를 주문했다. 서남아시아인들에게 1300도에서 구운 단단한 자기질 기물(器物)은 동경의 대상이었다. 대량으로 수입된 대부분 문양 없는 청자에 비해 옛날부터 자기들에게 익숙한 아라베스크 문양이 들어간 청화백자는 아라비아 시장 전역을 만족시키는 상품이였다.

경덕진에서는 이미 송나라 때 청화백자가 시험적

으로 만들어졌고 원나라 때인 14세기 전반에서 중기에 걸쳐 대량으로 생산하기 시작했다. 재미있는 것은 14세기 조소(曹昭)가 쓴 <격고요론(格古要論)>에는 '청화백자나 오채(五彩)는 요란스러운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를 보면 처음에는 중국인 사이에서 청화백자가 결코 환영받지 못한 것 같다. 오늘날 청화백자 유물이 대량으로 발견되고 있는 곳은 터키의 이스탄불, 이집트의 카이로, 이란의 아르다빌, 인도의 델리,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중국 이외의 나라이다. 이는 당시 청화백자가 해외로부터 주문을 받아 생산됐고 중국내의 소비는 미미했다는 것을 강하게 반영하는 것이다.

원래 해외로 운반하는 것은 아라비아 상인들의 일이었지만 16세기가 되면 점차 유럽의 선단이 중국 및 동아시아 무역에 힘을 기울였다. 특히 네덜란드는 중국 청화백자를 유럽 전역에 팔아 쉬누아즈리를 유행시켰다. 그러나 1709년 독일의 마

이센에서 자기(磁器) 생산이 성공하면서, 1800년대 이르러서는 유럽 자체 생산이 가능해져서 쉬누아즈리도 점차 내리막 길을 걷게 된다.

이 아름다운 주자는 유럽 소비자를 위해 만든 중국의 초기 수출품이다. 유럽의 그릇 모양과는 유사한 점이 전혀 없고 중동에 수출하기 위해 디자인된 것이다. 이 주자에는 포르투갈의 페이쇼투 가문(the Peixoto family)의 문장(紋章)이 그려져 있는데 이를 통해 안토니오 페이쇼투(Antonio Peixoto)가 주문한 것으로 추측한다. 황해가이자 상인이었던 안토니오 페이쇼투는 1542년 중국 광둥에 도착했으나 입국을 거절당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남중국 의 다른 해안을 통해서 입국했고 일본까지 갔다. 귀국길에 경덕진에서 만든 주자를 이란에서 투쟁과 부리에 은으로 덧입혔다. 주자 바닥에 '大明嘉靖年製(대명가정년간1522-1566 제작)' 라고 명기 돼있다.

백기란 bdaol@hanmail.net 동아사이버문화연구소 연구원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건이야기

36 벽승사 딱새



초여름 햇살이 따갑던 어느 날, 함양 벽승사. 선방 처마 밑으로 딱새 한 마리가 날아들었다. 딱새는 금방 짙은 먹이를 입에 물고서 다시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주위를 살폈다. 처마에서 나무로, 나무에서 지붕으로, 지붕에서 다시 처마 밑으로. 입 안의 먹이는 새끼를 것이었고, 동지가 알려질 것을 염려해 곧장 동지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었다.

마침내 의심을 떨친 어미 새가 처마 밑에 숨어있는 동지로 날아들었다. 새끼들은 제 얼굴보다도 크게 입을 벌리며 아우성이었다. 먹이는 그 중 한 마리의 새끼만이 받아먹었다. 어미 새는 어디론가 또 날아갔고, 시끄럽던 동지는 선방처럼 고요해졌다. 고요한 선방, 고요한 동지. 딱새의 시절도 치열하기는 한 가지였다.

옛 판화의 세계

황제가 금광명참을 묻다 (金光明懺)

삼화는 송나라 효종 황제가 악늘 스님에게 '금광명참'에 대해 묻는 장면을 담고 있다. 황제와 스님과 대신들이 아름다운 정원을 배경으로 판각돼 있다. <금광명경>은 중국 북량(北凉)의 담무참(曇無讖)이 번역한 대승 불교 경전으로 예전부터 나라를 수호하는 미묘한 경전으로 존송 받았다. <법화경> <인왕경>과 더불어 호국삼부경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효종은 악늘 스님에게 "무슨 연고로 해마다 금광명참을 닦는가?"라고 물었다. 스님이 대답하기를 "대법존전은 사바세계의 주인이며 석제환인은 하늘의 제왕 가운데서 33천을 거느리고 하토에 임하는 천신입니다. 또한 사대천왕은 함께 법을 수호하고 백성을 수호하겠다고 맹세한 천왕입니다. 그런 까닭에 부처님은 모든 천신을 위해서 금광명참매를 설하셨으니 이는 성세(盛世:국운이 번창하고 태평한 시대)의 법전이고 조가(朝家:조정의) 황화인 까닭에 마땅히 해마다 이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효종이 다시 물었다. "금광명참의 과의

(科儀)는 어떻게 되는가?" 이에 스님은 "경 안에 이참(懺儀)이 있고, 사참(懺儀)이 있습니다. 이참이라 하는 것은 단정하게 앉아서 마음을 궁구하는 일입니다. 사참에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참회는 허물을 고치는 데 인식하지 않는 것이며, 둘째는 효도로 부모를 섬기고 사해에 앞장서는 것, 셋째는 정법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들을 억울하게 하지 않는 것이며, 네 번째는 육제일에 경내에서 살생을 하지 않는 것이고, 다섯째는 깊이 인과를 믿고 마음 속에 밝은 지혜가 남아 있어 영산(靈山)의 부촉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황제는 이를 듣고 크게 기뻐하며 "매우 크게 마음이 열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해마다 상천축사에서 호국금광명참법도량을 열었다. 본문의 내용과 같이 중국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신라시대부터 <인왕경(仁王經)>과 함께 호국경전으로 채택돼 <금광명경>의 한 법회가 병행됐다. 고려사에는 <금광명경>에 의한 호국법회가 기우제를 위해 31번이나 열린 사실이 기록돼 있다. 선학 스님(영주시 고관학박물관 관장)



고관학박물관 소장 <석씨원류(釋氏源流)> 중 금광명참(金光明懺). 불암사 판 1673년 간행, 반각(半郭) 27.2x18.0cm.

불기 2554년(2010) 경인년 부처님 오신날

(사)대한불교법화중 북한산 무량사

전통사찰 경기등록 제 1호

전통사찰 북한산 무량사 주지 무량

신도회장 김영애 부회장 송경자·서상임
총무 정미자 재무 송순남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464-1호 TEL 02)385-7777,351-3789



항/상/진/강/을/지/켜/가/는 『영농조합법인 정품 인삼제조장』

- 생 산뿐만 아니라 항상 고객님의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까지 실천하겠습니다.
- 소 비자와 하너리는 마음으로 항상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 지킴이가 되겠습니다.
- 광 고홍보가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 행복을 생각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 건 강지킴이로서의 행복과 민족, 그리고 마음까지 이루어가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인삼, 홍삼, 수삼, 건강 제품을 찾을 때 "풍삼정"

귀하신 몸, 소중한 건강 "풍삼정홍삼"으로 지키십시오.

어디서나 온라인 인터넷에서도 "풍삼정"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ttp://www.insammaket.com>

■ 주소: 경북 영주시 풍기읍 동부리 241-2 / 054)636-2174

